

고린도교회의 분열과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잠언 9:7-9, 고린도전서 1:10-18

정윤돈 목사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도저히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응답을 받게 하시고, 말씀 받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중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발판이 마련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나를 치유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한 달 동안 집중전도캠프를 하고 있다. 캠프에 참여해 본 적 없는 세기족들이 많을 것이다. 전도캠프가 무엇인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기도하다가 틈을 짜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아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일정기간 복음을 전하다가, 가정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킨 것을 말한다. 일곱 군데에서 그렇게 했는데 세계 살릴 제자가 일어났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이다. 그런 똑같은 체험을 하자, 그래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금동에서 지역을 정했다. 집중적으로 한 군데를 정해서 가니까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다. 목회자들이 성령인도를 따라, 전반기에는 강목사님이 인도하면서 지교회회를 세웠다. 후반기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목표를 그렇게 두고,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캠프해서 지교회회를 세우고, 예비된 생명을 찾아내는 일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매달 지역을 정해 캠프해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세우는 전도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로 모이고 있다. 인도하시는 이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러더라. 그냥 돌기만 하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 그 말을 하겠는가? 전도에 부담을 느낄까봐, 여러분을 오게 하려고 꼬시는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아간에도 캠프 시간을 만들었다. 남자 성도들이 주변 현장을 돌면서 캠프를 하자고 한 것이다. 첫날에는 장로님 한 분만 오셨다고 하더라. 많은 장로님들이 모여서 지역을 돌면서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게 아니다. 학원의 문도 많이 열릴 수 있다. 연기학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고 방문했다니 신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우리 교회의 문화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온 분이였다. 지금 교회 앞 구 동양시스템즈 건물에 새 회사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도 이번에 만날 것이다. 교회 근처에 이랜드그룹 계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와 친했었다. 거기도 찾아가서 만나볼 것이다. 있었던 현장을 이번에 다같이 새롭게 들어가 보기를 원한다. 학교에서 친구를 전도하는 것은 가장 쉬운 전도다. 어려운 전도는 가정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줘야 하니까. 직장에서도 같듯이 많다. 그러나 진짜 전도캠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지속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잘 배워서, 현장에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한다.

복음이 너무 필요한 시대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과학적으로 발전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해 있고,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다. 추석이 가까워오는데, 갈수록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다. 친척끼리도 원수가 되고 있다.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 왜 전도캠프 이야기를 서두에서 하고 있는가? 캠프를 해 보면, 한 생명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한 생명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주일성수를 한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웃음) 그런데 교회까지 왔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집에 간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봉사도 하게 되고, 직분도 받아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한다. 더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넘어져야 하는 과정이 더 많이 생긴다. 이게 당연한 과정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문제가 왜 있어?’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교회 안의 분열상도 보게 된다. 세기족일 때는 몰랐는데, 중직자가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굳어간다.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얼굴이 되어 버린다. (웃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 합당치 않다’고 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인내, 고통, 갈등, 번민과 고민이 있다. 그것을 뛰어넘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응답이 발견되는 법이다. 자녀를 출산할 때 너무 힘들지만, 낳고 보면 너무 행복한 것과 같다. 세상 삶이 다 그러하다. 읊처럼,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어야 되겠다. 모든 갈등과 고통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바란다.

1. 고린도교회의 문제들

고린도교회가 이터했다. 시작은 참 좋았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성령인도 따라서 교회를 세웠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업이 같았다.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들이 기도 속에서 만난 후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며 교회를 세우게 된다. 고린도는 무역도시, 항구도시로서 부유한 곳이었고, 아테네가 가까웠기에 학문과 지식, 언변이 뛰어난 자들이 많았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우상이 있었는데,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 있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인데, 또한 생식기의 신이었다. 그래서 이 신전 안에는 약 천여 명의 여 사제가 매춘부로 있으면서 신을 숭배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안성하면 안성맞춤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이라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연상이 될 정도였다.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다. 거기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 후에 바울은 다시 아시아를 거쳐 에루살렘, 안디옥으로 가고, 다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리게 된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왜인가?

(1) 파벌 문제 : 바울도 지금 고린도에 없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에베소 전도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전1:1에 보면, ‘소스테네’라는 인물이 바울과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행18장에 등장하는 인물로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다. 유대인들이 바울 팀들을 재판에 고소했는데, 총독이 종교 관련 일은 재판할 이유가 없다고 각하시켜서 쫓아낸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스테네를 심하게 구타하는 모습이 나온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의 대표인 회당장이 유대인을 옹호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분이 그러나 맞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복음을 깨닫고, 평생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이 소스테네도 또 에베소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 당시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했다. 그러는 중에 생긴 일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먼저 왔을 때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한 아볼로라는 인물을 만났다. 바울은 사실 글은 잘 썼어도 언변은 부족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볼로는 설명을 너무 잘 하고 논리적으로 뛰어난 것이다.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복음을 받고 사역자가 되어 고린도로 건너갔다. 바울이 설교할 때는 즐겼던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버렸다. 파당이 생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고전1:11에, 바울과 파, 아볼로와 파, 베드로(게바)와 파가 나오고, 그리스도 파까지 나온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겼다.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으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안 받은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이다.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계시를 받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맞다 하고 주장하다가 또 분파가 생겼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전1:13)” 심지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다툼이 생기고, 성찬식 때문에도 갈등이 생겼다. 성찬 때는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데, 부자들이 자기들만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되어야 할 성찬식이 빈부 갈등의 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모든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꿔버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교회였다. (웃음)

(2) 세상 지식 문제 : 두 번째 문제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 철학은 복잡하고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복음은 단순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배웠던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별 것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다가 십자가의 도 이야기를 하면 너무 단순해 보인 것이다. 지금도 그렇다.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교육학자 중, 상담학자 중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다. 겨우 연구 좀 해서 논문, 저서 몇 편 펴냈을 뿐이다. 평생 그것 해 놓고 끝인데,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교수들 보면 성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른다.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 한다.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현장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 겸허하게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를 화평케 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란다. 일곱 램프들이 이런 일을 했다. 한국교회는 부흥 위주로 간다. 복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십자가의 도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버린다. 하지만 어느 교회에 그런 글이 붙어 있더라.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학교가 아니다. 국회가 아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전1:18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냥 ‘십자가 가는 능력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 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난다. 믿음이 능력임을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보여줘야 한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고전1:22-23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있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실력 발휘해서 믿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이 길이다. 주장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사단이 원하는 분리가 온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고전1:24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명절이 가까워졌는데, 집안 어른 중 하나가 우리 집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너희 아버지는 굉장히 피가 많은 것 같다.” 그랬다. 전혀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바보같이 모든 것을 양보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승리하지 않나? 그런 것을 보고 그분은 ‘피가 많다’고 착각한 것이다. 여러분, 다 양보하고 희생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 바란다.

(3) 음행 문제 : 고린도교회의 세 번째 문제가 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고전5:1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고 했다. 어떤 학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재산을 다 상속하는데, 아들이 그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교회에 와서 자랑하니까, 바울이 이 일을 듣고 꾸짖었던 것이다. 고전5:6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지낸 것들, 이방 신전에 갔던 것들을 와서 자랑하고, 방탕에 빠져 버리는 것이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방종에 약용해 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분위기에 교회가 휩쓸리고, 타락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자랑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에 강하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고전6:16).”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체질을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이다.

(4) 성도 간의 소송 문제 : 네 번째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성도들 간에 법적 소송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으로 가기에 이른 것이다. 고전6:7은 여기에 대해 답을 준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느 교단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투다가 법정으로 갔다고 한다. 그런데 30대 밖에 안 되는 새파란 여자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꾸짖었다고 한다. “목사님,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지, 왜 욕심을 부리세요? 장로님,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지만, 교회에서 헌신해야지, 그렇게 목사님을 어렵게 하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닌가.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법정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한다. 복음 받았는데도 이런 것 때문에 진도 문을 막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악한 것인가.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 하고 싸우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다. 싸울 때 다 옳은 말을 가지고 싸우지, 틀린 말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5) 금욕주의 : 다섯째로, 결혼을 반대하는 지나친 금욕주의도 문제가 있었다. 바울이 결혼을 안 했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고투리잡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당신은 뭘데 결혼을 안 하냐?” 반대로, 아예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 극단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와 함께,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에 빠진 자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전8:9에,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라고 덧붙이면서 말한다(고전7:12, 7:25).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고전7:7). 지금도 그렇다. 성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없을 때가 많다. 그러면 말씀에 기초해서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인도받아야 할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기초해야 한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체질과 사상 속에 뿌리내리고 녹아져 있지 않으면, 세상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또 튀어나오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교리 다툼에 빠져 버린다.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녹아내리기를 바란다.

2. 고린도교회의 근본 문제

(1)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 : 고린도교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각인, 뿌리, 체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간다. 과거의 모습과 생각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① 헬라의 지식, 철학, 수사학이 각인되어서 교회로 오니까, 설교를 비판하는 수준으로 간다. “아블로처럼 해야지, 왜 이렇게 설교를 못 하나?” 이렇게 가는 것이다. 내 고향에는 ‘호남의 성자’라고 불리던 목사님이 있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 “나는 고민이 있어. 성도들이 내가 설교할 때 안 웃으면 좋겠어.” (웃음)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되었다. 다 핑계다. 복음이 삶 속에 녹아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②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고린도교회는 우상숭배, 영지주의 뿌리에 빠져 있었다. 그런 우상 뿌리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로 왔으니, 은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방언, 예언 하게 되면 성령충만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열심히 싸웠다. 참된 성령충만,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③ 그러니까 체질이 마귀 체질이다. 분열, 교만, 음란의 체질을 못 버린 것이다.

(2)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 :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는가? 사실상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했다. 복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복음화가 되고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예언한다, 나는 방언한다 하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하고 싸운다. 마치 자기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우는 꼴이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몸이 아니냐, 같은 몸끼리 지적하고 싸우면 되겠느냐’ 한 것이다. 교회론을 몰랐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방탕하고 음란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

결론을 내린다. 교회와 성도의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화이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되게 하셨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peace maker)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는 양보요, 최고의 겸손이다. 남의 허물을 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허물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요즘은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희생하시기를 축원한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방언과 예언으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의 실천 현상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체험한 사람은, 신학적인 문제, 설교 문제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다. 더 큰 가치, 더 큰 축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두고 모든 사건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다. 고전10:1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살아가시기를 축원한다. 고전10:31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는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고전13장의 사랑장이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만두고 싶어지지 않나? 나는 어릴 때 교회에서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문제가 많았다. 연습할 때 지휘봉을 확 집어던져 버리고 그러더라. (웃음) 가장 은혜로운 현장인데, 잘못하면 음악하는 사람이 사단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렇게 짜증을 내면 성가대원들이 힘들겠냐, 안 힘들겠냐? 그래서 우리 황집사님처럼 예쁘고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하고 실력 없는 사람이 지휘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가대원들이 되시기 바란다. (웃음) 가정도, 직장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고전 15:58을 보자. 다름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결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값이 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정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문제가 생길지라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보여주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